

한국에 언제 오느냐고 이제 여기 저기서 물어오곤 합니다. 엄마가 치매로 단기 최근 기억들을 잘 하지 못하신다고 언니도 빨리 들어오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바꾸어 한국에서 좀 더 긴 시간을 갖고자 이곳 여러 일들을 마무리하려니 시간이 없어 다시 출국일을 좀 연기했습니다. 10월 이전에는 출국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프론티어 선교회 주최로 진행된 전도와 양육 그리고 제자 배가 훈련이 스위스 참가자들을 전부 포함해 100명이었는데 이제 각 마을에 갓 구원 받고 세례받은 이들을 남겨 놓고 훌쩍 각 곳으로 돌아가고, 이곳에 남은 삼십여명의 훈련받은 자들에게 모든 양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가정 교회 시작이라는 묵직한 사명을 남겨놓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데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 마을에 두세 사람들을 배정에 후속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 삼주 반의 훈련 전도 실습을 통해 많은이들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창조부터 그리스도 까지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후속 제자훈련과 가정교회가 세워 나가는 노력 속에서 많은 열매 있게 하소서!
2. 방학 청소년 축구대회를 주관하는 나불레 선교사가 각 경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게 지게 하소서! ☺
3. 북쪽 국경지대 마을의 교회들은 여전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점점 더 많은 농토과 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해 신학기에도 학용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왔지만 정부와 유니세프 같은 단체들이 돋기도하고, 현재 부족한 재정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두 후원교회에서 정규적으로 토론파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시는 그 후원금에서 일단락 적은 금액이라도 교인들 각 가정에 새 학교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젠 북쪽 도시인 다파옹까지 피난민이 밀려와 텐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망 나오다가 뿔뿔히 흩어져 부모없는 아이들도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효과적인 무장한 근본주의자들 퇴치의 결과를 가져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2023년 9월 / 토고 전미자 선교사 기도 편지

4. 9월 새학년 시작에 5명의 청소년들이 준비해놓은 공동체 숙소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하도록 계획 했는데,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내년 학기에 공동체를 시작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비전을 세워 나갈 청소년들을 준비 시켜주소서!

5. 동역하는 미셀목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여 미셀 목사가 각 지교회의 청년부 회원들을 격려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이들로 세워나가게 하소서! ✤

6. 건축 미완성 센터와 학교와 스탠드 하우스를 위한 건축 진행이 제가 없는 동안 일단 닫게 되는데, 한국 방문을 다녀와서 마무리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건축 현장이 잘 보존되며 새로운 감독과 일군들이 준비 되게 하소서!

• 7. 장단기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함께 이곳 선교지에서 동역하게 하소서!

8. 오고가는 여행이 안전하고 건강하여 어느 것도 치료가 필요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소서!

9. 제가 소속한 불어권 선교회가 9월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마음으로 다음 삼십년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선교회 되게 하소서!

*** 소식을 오랫만에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적었다가 내용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속히 전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기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2023년 9월 10일

ㅌ ㄱ 전미자 선교사 드립니다